

전남도 '정책비전투어' 재가동...광양 맞춤 미래 비전 제시

K-철강산업 혁신·이차전지 특화·천만관광객 유치 K-관광도시 등

전남도가 24일 광양에서 '정책비전투어'를 개최했다. 전남연구원과 지역 맞춤형 미래 비전을 마련해 지역민에게 제안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정책비전투어는 '6·3 조기대선'으로 잠시 중단됐다 이날 재가동됐다.

전남도가 이날 오후 2시 광양 성황스포츠클럽 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한 광양시 정책비전투어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정인화 광양시장, 최대원 광양시의회 의장, 임형석(민주·광양1)·강정일(민주·광양2) 도의원을 비롯해 전남도와 전남연구원 관계자, 도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에서 "광양은 550리 섬진강이 만든 자연환경과 광양항, 포스코 등 산업과 자연환경이 완벽히 어우러진 전국 최고의 도시"라며 "가장 젊은 도시이자 전남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도시다. 또 이차전지 산업을 이끌고 있고 철강·항만에서도 경쟁력 강화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고 광양의 잠재력을 강조했다.

전남연구원원은 이어 'K-첨단산업의 심장, 글로벌 해양시대 신성장잠재 광양'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K-철강산업 혁신, 글로벌 친환경 철강도시 선

▲세계로 도약하는, 이차전지 특화도시 ▲스마트항만 구축, 글로벌 물류 중심도시 ▲산업벨트를 완성하는 광양만권 교통허브 ▲천만관광객이 찾는 K-관광도시 ▲청년 벤처창업 허브도시 ▲고소득·친환경 광양형 미래농업 육성 등은 비전으로 7대 비전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철강산업 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수소환원제철 전환과 저탄소 순환체계 구축 ▲중소기업 인공지능전환 및 고부가 첨단소재 혁신 생태계 조성 ▲관세조정 및 고부가 산업재편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차전지 특화도시 추진을 위해서는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망 허브 ▲사용후 배터리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ESS 등 차세대 배터리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한국형 스마트항만 구축으로 글로벌 물류 중심도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정책으로 ▲북극항로 연계 특화 물류단지 조성 ▲광양항-부산항 연안운송체계 구축 ▲국내 최초 한국형 완전 자동화 부두 조성 등의 강조했다.

지난 2024년 관광객 400만명을 달성한 광양시가 오는 2030년 관광객 1000만명 달성을 위해 구불산 권 관광 클러스터 조성,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 구

축, 철강산업 연계 예술관광도시 선도, 국제 미디어 아트 중심 유네스코 창의도시 기반 마련 등의 방안도 이날 논의됐다.

이어진 정책 토론에서는 김영록 지사가 광양시민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정인화 광양시장은 "백운산·구불산·섬진강 권역 개발사업 추진 관광도시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로 인해 방문객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방문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구불산 전망대'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절실하다"면서 "주차장 확장과 회전 교차로 설치, 안전 난간대 정비에 필요한 예산 10억원 지원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근휘 광양시장이군경회장은 광양시 보존회관은 22개 사군 가운데 유일한 구축 건물으로 2개 단체가 회관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노후화돼있으며 보존회관 신축 이전 사업비 5억원 지원을 요구했다. 이병만 광양시 관공협회회장은 도 무형문화유산인 '광양 진월 전어잡이 소리' 전승·보존을 위한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비 6억원을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건의를 들은 뒤 "보존회관의 경우 도가 지원할 수 없는 사업이다. 내년도 국비 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우선 두 사업 모두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수권 건립은 취지에 적극 동참한다. 우선 철거비 및 설계비 1억6000만원은 협의가 된 상태로 추후 건립사업비는 국가유산청을 통해 확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4일 광양에서 열린 정책비전투어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광양시민의 건의사항을 듣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양만 환경포럼 소속 주민 허형태씨는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환경오염시설 통관관리군현을 시·군에 재이양해줄 것을 건의했다.

안성수 광양시벤처기업협회회장은 유휴부지를 활용해 시만참여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갖춰 전력 판매 대금을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발전소 설

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줄 것과 계통문제 해소도 서둘러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광양시가 이차전지 선도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광양만권을 이차전지 원료·소재 분야 특화단지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안성수 광양시벤처기업협회 회장의 건의도 나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화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활성화 '총력'

전남바이오진흥원-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업무 협약

전남바이오진흥원이 지역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선다.

전남바이오진흥원은 24일 바이오진흥원에서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바이오산업 발전과 화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활성화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국내·외 우수 제약사와의 네트워킹 및 오픈이노베이션 촉진 ▲클러스터 입주기업 유치 및 공동 마케팅 ▲연구개발(R&D)

·임상·사업화 등 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 ▲정책·규제 자문 및 글로벌 진출 지원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연계 ▲투자 유치 및 클러스터 브랜드 가치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바이오진흥원은 협약을 계기로 대형 제약사와의 협업을 확대하고 WHO 글로벌바이오오피스 등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연계하면서 화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간다는 구상이

다. 전남바이오진흥원은 2002년 전남도가 설립한 재단으로 산하 4개 부서에 200여명의 전문인력이 근무 중이다.

바이오진흥원에는 현재 100여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남부권 바이오헬스케어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윤호열 전남바이오진흥원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화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가 대한민국 바이오헬스케어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 친환경쌀 '여성이 뽑은 최고 명품 대상'

품종부터 도정까지 철저 관리로 소비자 신뢰 '19년 연속 선정'

전남 친환경쌀이 여성가족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제27회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 대상'에 선정됐다.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 대상'은 지난 1999년 제정된 소비자 브랜드 평가 상으로, 전국 20~59세 성인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학계 전문가 평가위원회 심사를 종합해 선정한다.

전남 친환경 쌀은 지난 2006년 첫 수상 이후 19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소비자 선택을 받아 명품 친

환경 쌀 브랜드임을 인정받았다.

친환경 벼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고 벼 가공건조 저장 시설 등을 지원하는 등 주기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갖춰 품종부터 도정까지 철저하게 관리한 것이 소비자 신뢰로 이어졌다는 게 전남도 분석이다.

전남은 전국 친환경 벼 인증 면적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기농 벼 면적이 전국 면적의 71%에 이르는 유기농·저탄소 쌀 생산 1번지다.

지난해만 CJ프레시웨이 단체급식소 40여 곳에 전남 친환경쌀 200 t을 공급했고 올해도 프랜차이즈 암샘김밥에 영암 유기농 새청무쌀을 매일 50 t씩 공급하는 등 국내외 유통망도 넓혀나가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 친환경 쌀의 국내 판매 및 최근 급증하는 해외 판매에도 적극 나서 농민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



도, 지역 중소기업 지원 시책 설명회

전남신보 등 4개 기관 참여

전남도는 24일 목포상공회의소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 중소자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지원 시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역 기업들에게 정부와 유관기관의 지원사업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설명회에는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테크노파크, 삼성전자가 4개 기관이 참여했다.

기관들은 차례로 올해 주요 지원사업을 설명했다.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 올해 바뀐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인력 지원 등 사업을 소개하

면서 이를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했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은 경기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을 위한 신용보증·특례보증·소상공인 금융지원 제도 등을 안내해 기업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전남테크노파크는 기업들의 R&D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안내했고 삼성전자는 스마트공장 안내로 큰 관심을 받았다.

전남도 중소기업과 관계자는 "설명회가 지역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정보와 기업 맞춤형 지원이 현장에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wangshin University. Text includes: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For the Lord To the World', 'www.kwangshin.ac.kr',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